



조선대, RISE사업 추진 전략 구체화 설명회

조선대학교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추진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사진)

조선대는 지난 4~5일 이틀간 전북 고창 웰파크호텔에서 '2025 RISE사업 워크숍'을 열고, RISE 본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체계를 점검하고 협업 기반을 다졌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김춘성 총장과 전제열 부총장(RISE사업단장)을 비롯해 주요 보직자, 센터장, 연구책임자 등 대학 내 RISE사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서는 사업 추진 현황 공유, 센터별 실행 전략 수립, 성과 창출 방안 논의, 세부 프로그램 회의 등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센터별 회의에서는 과제별 추진 방향을 명확히 하고 부서 간 협업 전략이 활발히 논의됐다.

최동환 기자



광주은행·iM뱅크, 영호남 상생 달빛동맹

광주은행은 지난 9일 전라남도 담양에서 iM뱅크(구 대구은행)와 함께 영호남의 상생발전과 화합을 위한 '달빛동맹 교류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사진)

올해로 8회째를 맞은 '달빛동맹 봉사활동'은 광주광역시(빛고을)와 대구광역시(달구벌) 간의 우호 협력 관계인 '달빛동맹'의 일환으로, 광주은행과 iM뱅크는 정기적으로 양 지역을 상호 방문해 봉사활동과 문화 체험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고병일 광주은행장과 황병우 iM뱅크 은행장을 비롯한 양사 임직원 60여 명이 참여했으며 △취약계층을 위한 '달빛꾸러미' 제작 봉사활동 △명인과 함께하는 담양 한과 만들기 체험 △지역사회 공동발전을 염원하는 소원패 달기 등 양 기관의 협력과 화합을 다질 수 있는 다채로운 활동을 펼쳤다.

최권범 기자

목포대 중국언어와문화학과 조하은 '판다컵 청년 중국이야기' 장려상 수상 수필 '나를 세상 밖으로 꺼내준 중국'

국립목포대학교는 중국언어와문화학과 3학년 조하은(사진) 학생이 '2024 판다컵 한국 청년의 중국이야기' 글짓기 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중국외국문 아시아태평양 커뮤니케이션센터가 주관했으며, 만 16세부터 35세까지 한국 청년들이 중국에 대한 인식과 체험을 글로 표현하는 형식으로 치러졌다.

조하은 학생은 '나를 세상 밖으로 꺼내준 중국'이라는 제목의 수필을 통해 중국 교환학생 시절 겪은 문화적 차이와 우정, 중국 사회에 대한 시선의 변화를 진솔하게 담아내며 심사위원단의 호평을 받았다.

'판다컵'은 한중 간 인문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글쓰기 공모전으로 2022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으며, 올해는 총 20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시상은 특등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나뉘며 창의성, 표현력, 주제 적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됐다.

조 학생을 비롯한 일부 수상자는 중국 현지 인문 교류 프로그램에 초청될 예정이며, 시상식과 함께 한중일 청년 토론회 등 다양한 교류 행사도 진행된다.

목포=정기찬 기자



순천시자율방범연합대, 저소득가정 후원

순천시자율방범연합대는 지난 9일 해룡면행정복지센터에 관내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리먼 21박스(70만원 상당) 등 후원물품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사진)

이번에 전달된 물품은 해룡면 내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가정 및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21가구에 지원될 예정이다.

차기찬 순천시자율방범연합대 대장은 "지역주민을 위해 대원들이 뜻을 모아 준비한 것으로 이웃을 위한 나눔이 확산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형금 해룡면장은 "순천시자율방범연합대가 지역 공동체 치안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식 가정을 위한 따뜻한 나눔에도 앞장서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해룡면도 앞으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자율방범연합대는 다양한 치안 활동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순천=배서준 기자



광주상의, 일경험 프로그램 1차 성과공유회

광주상공회의소가 운영 중인 미래내일일경험 호남권 지원센터는 (사)인재육성아카데미와 함께 2025 프로젝트형 일경험 프로그램 1차 연수과정을 지난 9일 성과공유회를 끝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사진)

2025 프로젝트형 일경험 프로그램은 연중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기업에서 제안한 실무 기반 과제를 청년들이 수행함으로써 실무 중심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설계된 일경험 사업이다.

이번 1차 프로그램은 5월 9일부터 6월 9일까지 약 한 달간 운영됐다.

이번 프로그램으로 퍼포먼스마케팅마스터과정 20명, IT마스터과정 8명, 홍보마케팅마스터과정 27명 등 총 55명의 연수생이 수료했으며, 참여자들은 실무 역량을 높이고 현장 중심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값진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최권범 기자



광주소방, 여름철 풍수해 대비 현장 점검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10일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산사태 등 풍수해 사고 예방을 위해 광산구 도산동 장록교와 임곡동 용진교 등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사진)

이번 점검은 지난 2020년과 2023년 수해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지하차도 침수, 산사태로 인한 낙석, 토사 매몰, 급류 휩쓸림 등 재난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 추진됐다.

고영국 광주소방안전본부장은 이날 장록교와 용진교 일대를 방문해 배수로와 배수시설 등을 집중 확인하고 예방 대책을 살폈다. 특히 동시다발 출동 상황에 대비해 △119종합상황실 비상접수대 증설 △수난구조 소방장비 100% 가동 유지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예방 순찰 강화 등을 지시했다.

정상이 기자



광주 서구, (주)천지문화원 바자회 수익 전액 기탁받아

광주광역시 서구는 10일 (주)천지문화원과 '제2회 이웃사랑&나눔 바자회' 수익금 및 후원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사진)

이날 전달식은 지난 4월 천지장례식장에서 열린 바자회를 통해 조성된 판매수익금과 잔여 후원 물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자 마련됐다.

바자회 수익금 3000만원과 1200만원 상당의 식료품 등 총 4200만원 규모의 후원금품은 서구의 고액 기부자 모임인 '서구아너스'의 민·관 협력사업을 통해 어르신과 복지 사각지대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주)천지문화원은 지난 2023년 8월 '든든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협약 체결 이후 지금까지 매년 1000만원씩을 기탁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바자회에서 마련된 3000만원 상당의 수익금과 물품을 기탁한 바 있다.

배창숙 (주)천지문화원 대표는 "수익금과 물품을 의미있는 곳에 사용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소중한 자원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이웃 돌봄에 의미 있게 사용하겠다"며 "착한도시 서구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준명 기자

광주 북구의회, 제303회 제1차 정례회 개최

광주 북구의회는 10일 제303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오는 30일까지 21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조례안 16건, 규칙안 1건, 동의안 3건, 계획안 1건, 결의안 1건 등 총 24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정례회는 1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6일까지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17일부터 25일까지는 북구청을 비롯해 북구시설관리공단과 본회의 의결 기관인 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등 북구청 사무를 위임·위탁 받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26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 사업지 현장활동을 실시하고 30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에서 심사한 의안을 최종 의결하며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최무송 북구의장은 "북구가 광주 자치구 중에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만큼, 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의 균형이 필요하다"며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한 꼼꼼한 점검과 합리적인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승우 기자

전역 BTS RM·뷔 "무대 복귀 빨리 하겠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RM(본명 김남준·31)과 뷔(본명 김태형·30)가 현역 군 복무를 마치고 10일 사회로 복귀했다.

RM과 뷔는 이날 각 부대에서 퇴소한 뒤 강원 춘천시 신북읍 울문리 신북읍체육공원 축구장에서 팬들에게 전역 인사를 했다.

두 사람이 오전 9시께 각자 차에서 내린 뒤 서로 가볍게 포옹하자 팬들의 함성이 터져 나왔다.

RM은 선글라스를 낀 채 색소폰으로 애니메이션 '명탐정 코난'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을 연주하며 팬들 앞에 모습을 나타냈고, 뷔는 두 손에 꽃다발을 한 아름 들고 밝은 미소를 띠며 등장했다.

팀의 리더 RM은 "공연이 제일 하고 싶다. 빨리 앨범을 만들어서 다시 무대로 복귀하도록 하겠다"며 "부대 복귀 그만하고 무대 복귀를 빨리하겠다. 다시 BTS의 RM과 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RM은 "저희는 역대 가장 짧은 군 복무를 했고, 또 여건도 많이 좋아졌다.



RM

뷔

괴롭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군 생활을 통해 전방·후방에서 나라를 지켜주고 싸워줘서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며 "팬분들에게 기다려줘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뷔는 "군대는 몸과 마음을 다시 생각하고 잡는 시기였다. 저는 제 몸과 마음을 다시 만들었다"며 "하루빨리 '아미'들에게 달려가고 싶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정말 맛있는 무대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남은 용사들 다치지 말고 안전하게 훈련해서 무사히 전역했으면 좋겠다"며 "사회에 나가서 좋은, 맛있는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